



4면
동네마트서 만나는
전주 사회적경제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음 9월 10일) 제264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전북 농업 100년 대계 기틀 다진다

전북도, 5개년 계획 수립
청년농업인 2500명 육성
5대 전략에 1조3754억원
속도감 있는 추진 등 관건

전북도가 농업·농촌의 최대 난제인 농업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전북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농업인 육성 5개년(2020~2024) 계획을 수립했다.

도는 현재 500명 수준인 청년농업인을 2024년까지 2,500명 수준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래 농업인력 확보 기반과 유망 청년, 영농창업 역량 강화 등 5대 추진전략과 14개 중점추진과제, 57개 세부 사업을 선정해 2024년까지 5년간 1조3,75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청년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은 청년 농업인의 농업생산 활동과 농촌사회에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체계 구축 등을 수립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농촌 분야의 중기 계획이다.

전북도는 영농정착을 위한 진입 이 전단계, 진입단계, 진입 초기 정착단계, 정착·성장단계 등 단계별 추진전략을 세우고, 맞춤형 창업 자금과 기술·경영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건실한 농업인의 성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청년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첫째, 미래농업인력 확보의 기반 마련과 유망 청년을 위해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농업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젊고 유능한 다양한 인재 유입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농촌유학 지원사업과 도시와 농촌 청년의 공동 심리캠프를 운영 하고 미래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과학 영농 농식품 가공·유통 등 100여 개의 농업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만 40세 미만 청년의 스마트 팜 창업 활성화를 위해 매년 50여 명을 선발, 20개월 간 청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 교육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둘째, 청년농업인의 영농창업 역량을



저층주거지 재생 방향 발표 전주시는 지난 23일 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조준배 지역재생총괄기획자, 김원주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도시혁신센터장, 도시혁신센터장 등을 포함한 중간지원조직 센터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저층주거지 재생 방향과 실천과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강화를 위한 취업·창업의 기초역량 및 실천역량 강화, 영농창업기반 조성 지원, 귀농·귀촌 연계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시책을 추진한다. 청년에게 다양한 경로로 영농진입자들에 대한 경영교육, 신규 귀농 멘토-멘토링 등 교육을 추진해 귀농·창업 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 젊고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 경영인을 발굴해 일정기간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지원하며 정예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고, 귀농·귀촌 청년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영농 기술 습득 및 농촌체류 기간 임시 거주시설, 귀농 창업·주책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셋째, 청년농업인의 영농진입 초기 정착단계 집중 지원을 통해 안정적 영농정착을 유도하고자 내실있는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전북만의 특색 있는 청년농업인 전복정착 프로젝트 시책을 추진한다.

도는 영농진입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에게 3년간 영농정착지원금(80~100만원/월)을 지급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농업인들의 영농에 필요한 농민수산물전기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1%)해 안정적 정착과 농업경영 안정을 도울 방침이다.

이 외에 안정적 정착을 위한 영농정착금·정책자금 이자 보전, 영농기반 마련 및 주거환경 개선과 영농기반 현대화 등 도내 정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넷째, 청년농업인의 성장지원 강화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경영기반 확보 및 판로 지원,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농촌사회 적응력 강화 지원 시책을 추진한다.

기술고도화 규모화 기반 등을 지원, 전문경영체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농촌융복합산업화 등 필요한 제조공장, 저장, 직판장 체험시설 등을 지원한다. 또 원예와 과수, 축산 특용작물 등의 ICT 융복합 지원을 통해 첨단기술 역량을 제고와 현대화를 추진하고, 청년 창업농의 성장과 도약을 위한 기술고도화, 경영다각화 프로그램 지원한다.

다섯째, 지역단위 밀착지원 및 영농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협력네트워크(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와 농어업농어촌 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의 운영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및 농어촌 지역의 공동체 강화에 나선다.

전북도 최용 농축수산물품질관리원은 "전북 미래 농업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는 얼마나 속도감 있게 시책을 추진해 전도유량한 정예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가에 달려 있다"며 "2024년까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계획을 과감하게 추진해 청년농업인 유입 촉진을 통한 농업농촌의 고질적인 고령화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농촌지역이 활력이 넘치고 웃음꽃이 피는 곳으로 탈바꿈하며,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통해 농업인으로써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시책을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호상기자

'옛 도심 골목길 살리기' 주거지 재생 전략 윤곽

전주시, 최종보고회... auri 연구 결과물 발표

빈집과 저층 주거지가 많은 전주 구도심이 누구나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돌봄 서비스와 문화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 재생된다.

전주시는 지난 23일 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조준배 지역재생총괄기획자, 김원주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도시혁신센터장, 도시혁신센터장 등을 포함한 중간지원조직 센터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저층주거지 재생 방향과 실천과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 수행을 맡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는 지난 10개월 동안 추진해온 전주시 주거지재생 기본구상 및 발전전략 수립 연구 결과물을 발표했다.

auri는 전주시 주거지재생 비전으로 '시민과 함께, 살고 싶은 전주 집다움'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주거지 ▲골목 문화가 살아있는 주거지 ▲지역사회 지속 거주가 가능한 주거지 ▲탄소배출이 적은 주거지 ▲한옥과 문화가 일상에 녹아드는 주거지 등 다섯 가지 주거지 재생 목표를 제시했다.

이어 ▲빈집과 유휴공간 활용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 연계 ▲도시재생뉴딜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등을 주요 실천과제로 정했다.

auri는 주거지재생 기본방향으로 는 인구변화 추이를 고려한 노후 주거지 재생으로 신규 주택수요에 대응하고, 주거격차 해소를 위해 저층 노후주거지를 재생해 보편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빈집을 매입해 공공거점을 조성하고 골목길 연계형 단독주택 재건축 등을 추진하는 민간협력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생태유식과 환경교육, 생활환경 개선, 자원순환을 위한 업사이클링 사업 등을 전개하는 주민주도형 스마트

그린 마을재생 시범사업처럼 주민 욕구와 동네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재생방향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주거지재생을 위한 주요 추진전략으로 ▲동네 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행정동 단위 공적임대주택 + 생활SOC 복합화 사업 ▲빈집·빈 점포, 유휴 공간 활용 10평 운동장 만들기 사업 ▲주민주도형 골목길 재생사업 ▲주민주도형 주거지재생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제시 ▲행정동 단위 세대복합형 돌봄인식주택 조성 ▲동네 맞춤형 패키지형 집수리 사업 확대 ▲빈집 현목을 활용한 마을 공동체 공간 조성 등을 제안했다.

시는 auri가 제안한 주거지재생 모델과 로드맵을 저층주거지 관리와 재생 활성화를 위한 내년도 주거지재생 시장과제 및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그간 빈집특화재생이나 공공거점형 재생 등 주거지재생 선도사업을 펼쳐온 시는 해피하우스 공공주택 공급, 집수리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전개해왔다.

송방원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전주시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동네마다 골목문화가 살아 있고 다양한 지역공동체 활동이 활발하다"면서 "모든 주민들이 편리하게 거주하고,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 주거지재생 실천과제 추진을 통해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에 앞장서는 선도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 국제적 이미지 제고, 경쟁력 향상 등 건축도시공간의 가치를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2007년 설립된 최초의 관련분야의 국책연구기관이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